

숲 정 이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루가 21, 36)

대림 제1주일

제 1독서 : 예레 33, 14-16

제 2독서 : 1데살 3, 12-4, 2

복 음 : 루가 21, 25-28, 34-36

강론

깨어 있는 삶

박기준 신부 / 교육국장

오늘로서 교회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의 첫날인 대림 1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2천년 전 주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할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주님의 현존하심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 세상 마칠 때에 영광중에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상징적으로 4주간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심을 기념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림시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와 보속과 깨어 기다림의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림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홍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 날이 갑자기 닥쳐올지 모르니, 늘 깨어 기도하여라”하고 경고하시면서 우리 생활의 근본적인 반성과 변화를 통한 준비의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조용히 살펴 보기로 합시다.

묵상과 성서읽기에 마음을 쓰기보다 잡서와 텔레비전에 정신을 쏟는 우리는 아니었는지?

미사에 참여하기 보다는 세상의 쾌락이나 유희에 우리 자신을 맡겨 버리는 삶은 아니었는지?

태아의 생명을 경시함으로써 낙태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참여하였던 우리는 아니었는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창조주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이웃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 급급한 우리는 아니었는지?

항상 깨어 있는 자의 삶으로 하느님과 나 그리고 이웃에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바로 지금이 은총의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

소리

파괴의 예술

지난 일요일 오후3시, 서울 남산의 외인(外人)아파트 꼭 파철거에 따른 TV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의 마음은 어땠을까?

‘남산 제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 행사에는 10만여명의 서울시민이 지켜 보는 가운데 22년 동안의 답답했던 마음을 속 시원히 풀어 주었다는데...

파괴의 예술이라고 극찬하며서 환호성에 박수까지 연발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무분별한 개발로 서울의 상징이요 성산(聖山)이 훼손되고 그나마 시야를 가렸던 장애물이 일시에 무너졌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는 의미가 더 클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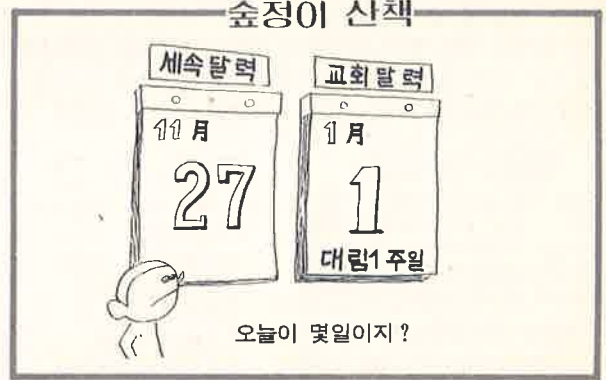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고장은 어떤가? 전주(全州)를 상징하는 기린봉·다가산·완산칠봉·화산공원·인후공원 등등 어디 한 곳인들 성한 곳이 있으며 아파트가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이 있는가? 심지어 영산이라는 국립공원 지리산은 이미 허리가 잘리고, 덕유산은 세계대회라는 명분으로 원형이 훼손되는 판국이다.

앞날을 걱정하는 시민 모임들까지 산자락의 고층 아파트 신축을 극렬히 반대했지만 범적타당성에 밀려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다.

이젠 우리도 20여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날, 파괴의 예술을 감상하는 기회를 기다려야만 하는가?

근시안적 사업시행이 가져오는 폐해는 불과 몇 년 안에 후회를 낳는다. 분명 후회가 처음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하는 가운데 대림시기를 기꺼이 맞이할 수 있겠는가? **문**

숲정이 산책



오늘이 몇일이지?

모범가정을 찾아서 ⑦

백운옥(토마스) · 소인숙(모니카) 가정

이리 신동 천주교회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알고 진실한 만남을 이루며 산다. 하지만 우리는 여유없이 바쁘게 살다보니 어떤 때 이웃과의 만남이 짜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 보면 만남과 대화의 부재로 점점 더 세상이 각박해 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만남과 대화가 있고,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백운옥 씨의 가정을 소개한다.

이리시 신동에 살고 있는 백운옥(58세, 삼례공고 교사) · 소인숙(53세) 씨는 노모(이은례 마리아 · 80세)를 모시고, 영찬(요한 · 28세, 한의사), 병재(바오로 · 26세, 회사원), 영란(세실리아 · 23세, 학생)과 함께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신앙 안에서 서로의 부족을 보완해 가며 이웃에 잔잔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백 토마스 씨는 대학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천주교를 알게 되어 세례를 받고,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해 오다가 부인 소인숙 씨를 만나 '66년 창인동 성당에서 관면혼례를 받았다. 그러나 부인 소인숙 씨는 결혼한 후에도 친정이 불교집안이었어서 천주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몇 차례의 병치레와 산고를 겪으면서 남편을 따라 자연스레 하느님을 찾게 되었고, 결혼 후 8년 만에 영세를 받아 성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저희 남편은 늘 충실하게 하느님께 순명하며 열심히 살으셨지만, 저는 하느님께 원망과 반항만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교육 공무원의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하기도 어려웠던 시절, 저희는 빚을 얻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어려울 때 하필이면 제가 다녔던 창인동 성당에서는 건물이 오래되어 새로이 성당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어려움은 죽은 친정 어머니가 다시 살아 온다 해도 반감지 않을 만큼 힘들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월급을 모두 성당 건립금으로 봉헌했습니다. 그땐 정말 남편이 미웠습니다. 남편은 성전을 짓는데 내 빚 다 갚고 나서 봉헌하는 것보다 먼저 봉헌하는 것이 더 뜻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성전을 건립하게 되었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냉담했죠. 그러다가 딸아이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다시 하느님을 찾았습니다”하고 부끄럽게 말하는 그녀의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데, 이들 부부는 신앙인으로서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하느님께 의지하며 기쁘게 승화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백 토마스 씨는 현재 본당에서 사목회 부회장, 꼬미시움 단장직을 맡고 있고, 소 모니카 씨는 자비의 모후 Pr 단장, 성모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시어머니께서도 80세의 고



령에도 레지오 단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카페나와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고 매일미사를 드린다. 그래서인지 교부간에 갈등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언제나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며, 자녀들과도 늘 함께 기도하고 대화를 나눈다. “일 년에 한두 번은 가족회의를 통해서 자녀들의 바람과 부모의 소망을 서로 나눕니다. 또 일 주일에 한 번은 성서를 읽고, 묵상과 생활나눔을 하지요. 또 자유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매일 함께 기도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다 커서 기도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인의 말에서 짙은 아쉬움을 볼 수 있었지만, 백운옥 씨의 가정은 늘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늘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안에서 늘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빛진 사랑을 이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겠지만, 지금 남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모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과 더 일치하는 기회가 되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인의 모습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본당신부님께 이 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살짝 여쭙었더니 신부님은 “내가 볼 때 이 가정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무던히도 인내하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범가정입니다”라고 대답해 주셨다.

이 취재를 더 잘 살라는 채적으로 받아들이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이들 가정이 가훈으로 여기는 믿음, 희망, 사랑이 삶 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솔잎 농축액

· 피를 맑게, 고혈압, 악성콜레스테롤 제거 · 기관지 천식, 노인성 치매에 효능 입증 · 「신비의 솔잎 치료법」책으로 출간(유태중 박사)(솔잎주도 판매합니다. 판매면 모집중)

이종화(방지거) · 기점남(파비올라)

☎225-0548, 221-0956

대아 광고

간판 · 네온싸인 · 프랑카드
아취 · 선전탑 · 조감도

이현상(요한)
조정화(헬레나)
전주국교 정문 앞

☎ 82-2547

호출 012-683-0703

수도자대학원 학생모집

· 모집전공: 철학, 신학 · 모집과정: 석사학위 · 모집대상: 수도자(우대), 일반신도, 성직자 · 모집인원: 〇〇명 · 전형방법: ①영어(필기시험) ②면접 및 서류전형 · 원서교부 및 접수: 94. 12. 1~95. 1. 14 · 전형일시: 95. 1. 20 · 문의: 서강대학교 (02)705-8668 FAX 705-8667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 75-0550

잡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윤정이 (1109) 김병오

12. 어머니로서의 평균 점수는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 세포로서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사회도 밝으나, 가정이 분열되면 교회도 사회도 그 미래가 어두워진다. 이러한 가정을 풍요로운 사랑의 보금자리로 마련하고 꾸미는 주인공은 아무래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여성이라 하겠다. 옛말에 "아버지가 잘못되면 일대가 망하고 어머니가 잘못되면 삼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물론 남편이 가정에 대한 책임에서 제외될 수야 없겠지만 모든 가정사에서는 아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일 것이다.

현대의 여성은 그 옛날 모든 것에 순종했던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근년에 들어 활발했던 여성 해방 운동으로 이제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역할은 다양해졌으며, 많은 활동과 봉사도 그 지위도 상당히 향상된 게 사실이다. 분명히 여성도 존엄한 인격체로서 온갖 억압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지위 향상이 여성의 책임과 의무의 포기를 뜻해서는 안 된다. 여성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 권리에만 급급하여 낙태까지도 마치 여성의 기본권인 양 오도해서는 안 된다. 구태여 성서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여성한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은 어머니로서의 책임이다. 여성의 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빛을 발하게 된다. 물론 더 보람있는 역할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가정사에 짓눌려 있을 수만 없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깨면서까지 이뤄낼 만한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어머니는 가정의 심장이다. 모든 가족들한테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할 영양 공급원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러한 위치를 포기하거나 상실할 때 가족 개개인은 물론 이 사회 전체가 병들어 갈 것이다.

모든 가정의 어머니가 "지금 나는 어머니로서의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잣대로 자신의 현재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교구 소식

※ 우리농촌 살리기 도·농 잔치마당: 12월2일~4일 전동 성당
주최-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우리밀 살리기 운동 전북협의회

- 1. 교구장 사목방문: 11월29일(화) 성심여중교, 12월1일(목) 작은 자매의 집, 해바라기 농장
2. 교구장 성서사도직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12월4일(일) 명동 샬트르 성바로수녀회
3. 가톨릭 문우회 모임: 12월3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4.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도보성지순례: 11월26일~27일 나바위-여산-천호
5. 운전기사 사도회 정기총회: 12월1일(목) 오전9시 개인택시조합 2층 강당
6. 성모기사회: 12월3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7. 푸른 군대 모임: 12월1일(목) 오전10시 덕진 성당
8. 종교음악후원회 미사 및 정기총회: 11월28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4층
9. 성가정 성공사례, 신앙체험수기, 선교체험 수기 공모: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마감-11월30일, 주최-전주교구 평협, 문의 (0652) 85-2935
10. 대전교구 전화사서함 '말씀의 전화' 개설: (042) 152-안내말씀-3217(삼위일체)
*주일강론 말씀을 전화로!

※ 축! 영명: 30일(성안드레아) 박종근, 김태윤, 박성팔, 장상원 신부님
12월3일(성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고경훈, 주묵성 신부님



주방직원 구함
1. 자격: 영세한 지 3년 이상된 50세미만 여성 2. 제출서류: ①이력서(사진부착) ②세례증명서 ③본당신부추천서 각 1통
3. 접수마감: 1994. 11. 29(화)
4. 접수 및 문의: 전주교구청 사무처(85-0041)

우편으로 하는 성서공부
시청각통신성서 신입생 모집
신구약성서 입문(2년)
①구비서류: 입학원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반명함판사진2매 ②원서교부 및 접수: 매년 12월~1월20일 ③원서대: 3,000원 ④교부처: 전국 성바로 서원 및 본교육부 ⑤문의: (02)987-4004, (0652)252-3398

오현 선기정 서예 개인전
명륜 서예학원 원장입니다
·축하미사: 12월3일(토) 오후 3시
주례-김치삼 신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12월3일~8일
·장소: 전북예술회관 1층 1실
☎221-6492

성지순례 모집 안내
·일시: 95. 1.5~17(12박13일)
·장소: 이집트/룩소/이스라엘/모마/바티칸/스위스/볼란서
·회비: 2,500,000원
<신부님 모시고 알차고 보람된 순례의 길을 나섭니다>
전일관광 ☎(0652)88-6666

'95 유치원생 모집
호남웅변미술종합학원
유병철(베드로)
박경애(안젤라)
호 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세호남(전주역 앞) 243-1413
효 자(삼천정용APT 앞) 221-8331

제9기 '95학년도 원아모집
새나라종합학원
장동철(아오스딩)
김은숙(까리따스)
서신동 우신APT 입구
☎72-8415, 8465

저용약, 천연조미료, 내장산 지하수
전량 태양초만 쓰는!
순창성당 김치
(판매중: 각 분당 매장)
순창성당 김장김치
(주문접수중: 11월20일마감, 12월매달)
·문의: 순창성당영농조합
☎(0674)53-8040, 52-1004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람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대림 제1주일(다해 시작)
 - ◎ 대림절을 뜻있게 보냅니다!
 - 1. 대림절 사랑의 나눔 성금 접수: 사무실
 - 2. 제대회 정기총회: 29일 어머니미사 후
 - 3. 특별기도 및 성체강복: 1일 저녁미사 후
 - 4. 병자 봉성체: 2일 오전중
* 환자가 있으신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바람
 - 5. 사목회 상임: 2일 저녁미사 후
 - 6. 외딴교우 초청의 밤: 4일 후 7시30분
* 외딴교우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7. 모임: ① 꾸리아-오늘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② 반회장 모임(1일 전 10시30분)
③ 울뜨레아(4일 장엄미사 후)
 - 8. 오늘부터 판공이 시작됩니다. 매일 미사 전후로 성사가 있습니다. 성사를 보실 분은 금년 교무금 완납과 내년 교무금을 신임해 주시고 사무실에서 성사표를 가져다 보아 주십시오(본당달력 배부)
 - 9. 금주 청소: 중노 4, 5반
차주 청소: 중노 8, 9반
- 지난해 봉헌금: 1,010,190원 □ 2차헌금: 1,868,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삼호
사목회장 황길평

- 1. 대림절 성서 특강: 강사-장상호 시몬 신부님
준비물-성서, 필기도구
낮반-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
저녁반-매주 수, 금요일 오후 7시
 - 2.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증명서: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 3. 성체강복: 12월1일(목) 저녁미사 후
 - 4. 대건회: 4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5. 사목회: 4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6. 대건회 새 임원: 회장-강영진(아오스당),
총무-박남수(요셉)
재무-안철조(도마)
서기-정승훈(요셉)
수고하시겠습니다.
 - 7. 성당 청소: 12월3일(토)
금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오교성 부부,
봉헌-유복규 가족
차주 전례: 해설-조옥례, 독서-김현덕 부부,
봉헌-김병화 가족
- 지난해 봉헌금: 635,110원 □ 교무금: 1,977,6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불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오늘은 대림 제1주일(다해 시작)입니다.
 - 1. 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 오늘 미사중
 - 2. 모임: ① 성모회-공식미사 후 ② 꾸리아, 요셉회-다음주일 ③ 사목회-3일(토) ④ 울뜨레아-27일(오늘) 저녁 7시, 내어두 강순용씨 대 3. 다음주일은 교무금 및 사제 양성 후원회비 납부의 날 4. 축! 혼인: 신랑-양기춘(프란치스코)군, 신부-조영란 양, 27일(오늘) 12시30분, 덕진 성당
 - 5. 성탄절 불우이웃 돕기 성미 봉헌: 성당은 모든 분들
 - 6. 금주 청소: 천주의 모친Pr 7. 차주 청소: 구세주의 모친Pr
 - 8. 감사: 달력제작에 협조해 주신 분-최삼윤, 이형서, 조동호, 최낙희
 - 9. 금주 전례: 해설-권원규, 독서-①강덕용 ②이석남
봉헌-성대직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충봉, 독서-①김봉길 ②주영례
봉헌-이명수씨 부부
- 죄란?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쁜줄 알면서도 자유 의지로 하느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하느님과 같이 지려고 함으로써 하느님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한다.
- 죄의
인류의 원조 아담과 하와가 악마(뱀)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은총을 잃게 되고 하느님과 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이 죄가 온 인류에게 미치는 죄이다.
- 지난해 봉헌금: 328,880원 □ 교무금: 210,000원

*** 서화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증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오늘은 대림 제1주일
 - 1. 반장회: 11월27일(오늘) 공식미사 후
 - 2. 꾸리아: 12월4일(다음주일) 오후 2시
 - 3. 청년회: 12월4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4. 사목회: 12월6일(화) 저녁 8시
 - 5. 자모회: 12월7일(수) 오전 10시30분
* 할머니, 할아버지 1일 피정
· 일시: 11월29일(화) 오전 9시~오후 4시
· 준비물: 가톨릭 기도서, 목주
· 참가비: 1천원
* 레지오나리에 언차 총 친목회: 12월중(날자 미정)
각 Pr은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참가바랍니다.
- 지난해 봉헌금: 961,950원 □ 교무금: 1,768,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대림 제1주일
 - 1. 금주: ① 교무금 납부주일
② 차랑 축복식-공식미사 후
③ 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 2. 성체강복 및 조배: 1일(목) 오전 10시
 - 3. 성가정회: 1일 오전 11시 4. 성모성심회: 1일 오후 3시
 - 5. 병자 봉성체: 2일(금)
 - 6. 12월 3일은 본당 주보성인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축일입니다.
(교우들의 많은 미사 참여바랍니다)
 - 7. 차주: ① 성소후원회비 납부주일 ② 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③ 재속극과라형제회-후 1시30분 ④ 요셉회-후 6시
 - 8. 추계 판공성사 안내: 12월6일-10일, 13일-17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초등부(18일 오후 3시 미사 전후)
중·고등부(18일 오후 5시미사 전후)
판공성사표 배부 및 사목회 면담: 총연관, 판공성사-사랑방
 - 9. 각 단체 95년도 사업계획서를 사목회에 제출바랍니다.
 - 10. 감사합니다: ① 사무실 쇼파 기증(지동철 프란치스코)
② 감사헌금 10만원(김순례 막달레나)
- 지난해 봉헌금: 2,032,96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삼근

- ◎ 당신만을 믿고 버리면 망신을 당하지 않으나, 당신을 함부로 배신하는 자 수치를 당하리이다" (시편 25.3).
 - 1. 사목회 연석회의: 사목 계획 제단체 종합 28일 저녁 7시
 - 2. 성시간 성체강복: 1일 저녁 7시30분 "기다리는 마음"
 - 3. 유아 세례: 3일 후 3시,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 4. 성탄 성가연습: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남성들의 참여를.
 - 5.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선으로 헌납한 금액에 한하여 발급
 - 6. M.E 나눔 모임: 29일 저녁 8시 새가족 환영 사제관
 - 7. 가정 방문: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30분부터, 29일 후 9-4, 5 1일 전 9-6 후 10-1 2일 전 10-2 후 10-3
 - 8. 자선발의 날: 30일 전 11시 어머니미사, 후 7시30분 아버지미사
 - 9. 교무금 납부주일: 사무실에 확인하시고 납부바랍니다.
 - 10. 회의: 풍송회-오늘 공식미사 후, 울뜨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다음주일 후 2시30분, 한빛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11. 축! 결혼: 오늘 후 1시 순정이 성당 최병천씨 장남 최선용(빈첸시오) 정만모씨 장녀 정복진(클로리아)
 - 12. 축복미사: 28일 저녁 7시30분 홍성욱(울리엠타) 코롱7동 1305
 - 13. 탈상미사: 28일 전 11시 황현규 부친 황 다니엘(광곡)
29일 전 11시 이영춘 부친 이 베드로(양지뜸)
 - 14. 전입을 환영합니다: 이영래(체칠리아) 강남-2 ☎225-0027
성화봉(메르소) 8-2 ☎83-6851
 - 15. 대림절 1일 피정: 12월6일 오전 10시-4시, 강사-범석규 신부
- 지난해 봉헌금: 1,246,620원 □ 교무금: 1,711,000원

성서교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전동 교육관, 요한복음 강의